

2022년 4분기 충청권 지역경제동향 요약

[지역통계과, 2023. 2. 20.]

- (광공업생산)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.2% 감소
 - 대전(-21%)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, 충북(-11.7%), 충남(-21%)은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(건설수주) 토목 부분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.8% 감소
 - 대전(4.5%), 충북(15.6%)은 건축 부분의 호조로 증가, 세종(-58.7%)은 토목 부분, 건축 부분의 부진, 충남(-10.3%)은 건축 부분의 부진으로 감소
- (수출) 메모리 반도체,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16.7% 감소
 - 대전(-18.2%)은 기타 일반기계류 등이 줄어, 세종(-15.5%)은 인쇄회로 등이 줄어, 충북(-0.8%), 충남(-20.6%)은 메모리 반도체 등이 줄어 감소
- (수입) 석탄, 나프타 등이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.0% 증가
 - 대전(-1.3%)은 기타 전기기기 등이 줄어, 충북(-14.9%)은 의약품 등이 줄어 감소, 세종(40.0%), 충남(11.0%)은 석탄 등이 늘어 증가
- (고용) 충청권 고용률은 전년동분기대비 1.0%p 상승
 - 대전(0.7%p), 세종(2.4%p), 충북(0.7%p), 충남(1.3%p) 모두 상승
- (실업) 충청권 실업률은 전년동분기대비 0.2%p 하락
 - 대전(-0.9%p), 충북(-0.1%p)은 하락, 세종은 동일, 충남(0.3%p)은 상승
- (인구이동)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많아 7,299명 순유입
 - 대전(-118명)은 순유출, 세종(1,268명), 충북(1,088명), 충남(5,061명)은 순유입

2022년 4분기 시도별 지역경제동향 요약

[지역통계과, 2023. 2. 20.]

대전

- 전년동분기대비 소비자물가(5.1%), 건설수주(4.5%), 서비스업생산(2.6%)은 증가한 반면, 수출(-18.2%), 소매판매(-5.2%), 광공업생산(-2.1%), 수입(-1.3%)은 감소
 -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, 음식 및 숙박 등의 가격 상승,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의 호조, 서비스업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증가
 - 수출은 기타 일반기계류,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및 부품 등이 줄어,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슈퍼마켓·집화점 및 편의점 등의 부진, 광공업생산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, 의료,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등의 부진, 수입은 기타 전자기기, 철도차량 등이 줄어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9천명 증가, 실업자 수는 30~59세, 15~29세에서 실업자 감소로 7천명 감소
 - 고용률(0.7%p)은 전년동분기대비 상승, 실업률(-0.9%p)은 하락
- 인구는 20대, 10대 등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, 60대, 50대 등에서 순유출이 많이 나타나 118명 순유출

세종

- 전년동분기대비 수입(40.0%), 소비자물가(5.5%)는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58.7%), 수출(-15.5%), 광공업생산(-6.9%)은 감소
 - 수입은 석탄, 쌀 등이 늘어,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, 음식 및 숙박 등의 가격 상승으로 증가
 -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, 건축 부문의 부진, 수출은 인쇄회로, 액정다이오드 등이 줄어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 7천 5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30~59세에서 실업자 증가로 2백명 증가
 - 고용률(2.4%p)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, 실업률은 전년동분기와 동일
- 인구는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났으며, 30대, 10세 미만 순으로 순유입이 많이 나타나 1,268명 순유입

충북

- 전년동분기대비 건설수주(15.6%), 소비자물가(5.9%), 서비스업생산(2.9%)은 증가한 반면, 수입(-14.9%), 광공업생산(-11.7%), 소매판매(-1.4%), 수출(-0.8%)은 감소
 -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의 호조,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, 음식 및 숙박 등의 가격 상승, 서비스업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호조로 증가
 - 수입은 의약품,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,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, 슈퍼마켓·잡화점 및 편의점 등의 부진,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, 정밀기기 등이 줄어 감소
- 취업자 수는 도소매·음식숙박업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 5천 8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전 연령층에서 실업자 감소로 1천 5백명 감소
 - 고용률(0.7%p)은 전년동분기대비 상승, 실업률(-0.1%p)은 하락
- 인구는 20대, 10세 미만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, 50대, 60대 등에서 순유입이 많이 나타나 1,088명 순유입

충남

- 전년동분기대비 수입(11.0%), 소비자물가(5.8%), 서비스업생산(4.8%), 소매판매(0.8%)는 증가한 반면, 수출(-20.6%), 건설수주(-10.3%), 광공업생산(-2.1%)은 감소
 - 수입은 석탄, 나프타 등이 늘어,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,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의 가격 상승, 서비스업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호조, 소매판매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, 대형마트의 호조로 증가
 -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,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줄어,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의 부진,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, 1차 금속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 대비 3만 5천 8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60세 이상, 30~59세에서 실업자 증가로 4천 4백명 증가
 - 고용률(1.3%p), 실업률(0.3%p) 모두 전년동분기대비 상승
- 인구는 8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나 5,061명 순유입

2022년 연간 충청권 지역경제동향 요약

[지역통계과, 2023. 2. 20.]

- (광공업생산)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1.1% 감소
 - 충북(1.1%)은 전기장비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, 대전(-5.3%)은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, 충남(-2.0%)은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감소
- (건설수주) 건축 부문 및 토목 부문의 호조로 전년대비 14.3% 증가
 - 세종(-35.7%)은 건축 부문의 부진로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, 대전(27.3%)은 건축 부문의 호조, 충북(19.4%), 충남(14.6%)은 건축 부문, 토목 부문의 호조로 전년대비 증가
- (수출)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, 경유 등이 늘어 전년대비 4.9% 증가
 - 대전(-5.4%)은 기타 음식료 소비재 등이 줄어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, 세종(5.7%)은 무선통신기기 등이 늘어, 충북(12.7%)은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 등이 늘어, 충남(3.2%)은 경유 등이 늘어 전년대비 증가
- (수입) 원유, 석탄 등이 늘어 전년대비 29.4% 증가
 - 대전(17.3%)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및 부품 등이 늘어, 세종(26.6%)은 석탄 등이 늘어, 충북(6.8%)은 기타 무기화합물 등이 늘어, 충남(36.5%)은 원유 등이 늘어 전년대비 증가
- (고용) 충청권 고용률은 전년대비 1.2%p 상승
 - 대전(0.7%p), 세종(1.1%p), 충북(1.6%p), 충남(1.3%p) 모두 상승
- (실업) 충청권 실업률은 전년대비 0.2%p 하락
 - 충북, 충남은 전년과 동일하고, 대전(-0.9%p), 세종(-0.1%p)은 전년대비 하락
- (인구이동)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많아 26,647명 순유입
 - 대전(-2,996명)은 순유출, 세종(10,128명), 충북(5,201명), 충남(14,314명)은 순유입

2022년 연간 시도별 지역경제동향 요약

[지역통계과, 2023. 2. 20.]

대전

- 전년대비 건설수주(27.3%), 수입(17.3%), 소비자물가(4.9%), 서비스업생산(4.6%), 소매판매(0.1%)는 증가한 반면, 수출(-5.4%), 광공업생산(-5.3%)은 감소
 - 건설수주는 건축 분야의 호조, 수입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및 부품, 사료 등이 늘어, 소비자물가는 교통, 음식 및 숙박 등의 가격 상승, 서비스업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호조, 소매판매는 백화점의 호조로 증가
 - 수출은 기타 음식료 소비재, 축전기와 전지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의류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대비 8만 9천명 증가, 실업자 수는 전 연령층에서 실업자 감소로 7천 5백명 감소
 - 고용률(0.7%p)은 전년대비 상승, 실업률(-0.9%p)은 하락
- 인구는 20대,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출이 나타나 2,996명 순유출

세종

- 전년대비 수입(26.6%), 수출(5.7%), 소비자물가(5.4%), 광공업생산(2.5%)은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35.7%)는 감소
 - 수입은 석탄 쌀 등이 늘어, 수출은 무선통신기기,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 등이 늘어,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, 교통 등의 가격 상승으로 증가
 - 건설수주는 건축 분야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대비 1만 1천 9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30~59세, 60세 이상에서 실업자 증가로 1백명 증가
 - 고용률(1.1%p)은 전년대비 상승, 실업률(-0.1%p)은 하락
- 인구는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났으며, 30대, 20대 순으로 순유입이 많이 나타나 10,128명 순유입

충북

- 전년대비 건설수주(19.4%), 수출(12.7%), 수입(6.8%), 소비자물가(5.7%), 서비스업생산(4.0%), 광공업생산(1.1%)은 증가한 반면, 소매판매(-1.9%)는 감소
 -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, 토목 부문의 호조, 수출은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, 기타 개별소자 반도체 및 부품 등이 늘어, 수입은 기타 무기화합물, 실리콘 웨이퍼 등이 늘어, 소비자물가는 교통,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, 서비스업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호조, 광공업생산은 전기장비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호조로 증가
 -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, 대형마트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도소매·음식숙박업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대비 2만 8천 6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30~59세에서 실업자 증가로 5백명 증가
 - 고용률(1.6%p)은 전년대비 상승, 실업률은 동일
- 인구는 20대, 10대,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나 5,201명 순유입

충남

- 전년대비 수입(36.5%), 건설수주(14.6%), 소비자물가(5.8%), 서비스업생산(4.1%), 수출(3.2%)은 증가한 반면, 광공업생산(-2.0%), 소매판매(-0.9%)는 감소
 - 수입은 원유, 석탄 등이 늘어,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, 토목 부문의 호조, 소비자물가는 교통,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, 서비스업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호조, 수출은 경유,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 등이 늘어 증가
 -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, 소매판매는 슈퍼마켓·잡화점 및 편의점, 대형마트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대비 3만 2천 7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60세 이상, 15~29세에서 실업자 증가로 1천 3백명 증가
 - 고용률(1.3%p)은 전년대비 상승, 실업률은 동일
- 인구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나 14,314명 순유입